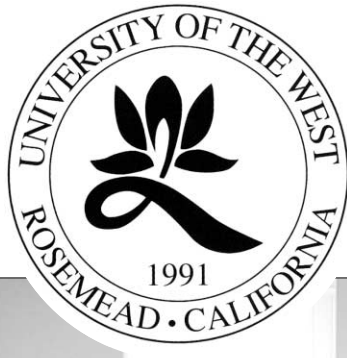




‘깨어있는 나 행복한 세상’

문턱 낮추고 마음 열고



‘이미지 UP’

미국 LA 서부대학교(University of the West)

대만 불광산사 성운 스님이 1991년 미국 LA에 설립한 서부대학교(University of the West). 서부대는 교육, 의료, 봉사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대만불교의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서양 사회에 대만불교와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또한 같은 동양권 불교인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서부대는 어떤 방법으로 대만 불교를 서구 사회에 알리고 있을까. 불교전문대학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불교의 세계화 청병을 지향한 미국 서부대학교를 탐방했다.

서부대학교는 티베트 불교 전통을 따르는 나로파 대학(Naropa University) 등과 더불어 미국 내 불교대학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특히 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5만 여권의 종교 관련 장서는 미국의 일반

한국인 최초로 교수에 부임하면서 한국 불교 연구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 됐다. 성원 스님은 “학교의 지원이 늘어 수행법, 한국어 교육 등 한국불교에 대한 강의가 늘어날 것”이라며 “오는 2005년



대만 불광산사가 대만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LA에 세운 서부대학교 최근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려 이름도 '서대'에서 '서부'로 변경, 제 2창학을 선언했으며 한국·베트남 등 동남아권의 불교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서부대 캠퍼스 전경.

부터 8월 13일까지 1학기동안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동시에 서부대학은 전문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의 신흥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현재 종합대학 승인을 위해 미국 당국에 학과 증설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2006년에 증설인가 심사를 통과하면 체육학, 교육학, 심리학 등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를 위해 서부대학은 지난 4월 학교 명칭을 '서래(His Lai University)'에서 '서부(University of the West)'로 바꾸며 사실상 제 2창학을 선언했다. 현지 미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기억하기 쉽게 학교명을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학

캅카스터 총장은 “일반 불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라며 “불교대학으로서 보시의 마음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대학은 또 아시아계 청소년들에게 자기 뿌리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정체성을 이끄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문화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방학 동안 모국(대만)의 청소년과 현지(미국)의 2·3세 교포가 함께 생활하며 각각 중국어, 영어를 배우는 특별강의가 대표적인 예다.

이 밖에도 서부대학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인터넷 온라인 캠퍼스를 개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학생,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리, 산스크

대만불교 중심에서 아시아로...정체성 강화 한국 교수 초빙·연구소 개소 등 관심 확대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규모다.

총장 루이스 랭카스터 박사를 비롯해 스리랑카 외교관 출신인 아난다 구루지(Ananda Guruge) 박사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학자들 무궁무진 교수진도 눈길을 끈다.

종교학, 철학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동시에 경영학, 외국인을 위한 영어연수 프로그램(ESL)도 운영하고 있다.

서부대학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불교전문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만(중국)불교 중심이었던 그동안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불교전통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성원 스님(미국 위스콘신대 박사)이

에는 한국불교 연구소를 개설해 한국불교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공간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학생들 또한 지난 여름 학기에 처음 ‘일본불교와 한국불교 비교 세미나’를 주제로 개설된 스님의 강의에 적극 참여해 한국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서부대학의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늘어난다. 서부대학에 유학을 원하는 한국 스님 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3천불~1만 4천불(한화15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서부대학은 동국대와 조계종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선정되면 2005년 1월

국불교 2세대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부대학이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를

한국불교 역사·전통 전달할 수 있는 인재·서적 갖춰야

늘리게 된 것도 이런 랭카스터 총장의 영향 때문이다.

“전통과 역사적 영향력에 비해 한국불교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대학의 한국불교 연구소가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아시아 불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랭카스터 총장은 또 한국불교가 서구사회에서 티베트·중국·일본불교에 밀려 소수학문으로 여겨져 온 현실에 대한 지적을 덧붙였다. 특히 경제적 성장과

지역민 함께하는 교육으로 포교 자연스럽게 다인종·다문화 포용, 온라인 캠퍼스 지향

교를 널리 알리고 규모를 넓혀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세계 불교학계의 거장 루이스 랭카스터 박사가 총장으로 부임했다.

서부대학은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과정 △호스피스 △비교문화 카운셀링 △불교 리더십 및 교육자 양성과정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다. 또 이웃주민에게 캠퍼스를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방했다. 일단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문턱을 낮춰 친숙하도록 만들어 학교의 교육 이념과 대만 불교를 알리려는 의도다.

리트어 텍스트 등 불교학을 기본으로 다양한 무상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대만불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설립됐지만 범종단적인 자세로 미국사회에 교육, 문화포교를 현지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서부대학과 한국불교 또한 교육에 관심이 높은 서구사회를 겨냥해 현지의 대학, 대학원 등의 공공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 현지 학자들의 조언이다. 만일 오프라인 교육 시설 건립이 장시간을 요해 당장 힘들다면 다양한 한국 불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부터 시작하려는 열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글·사진/LA 서부대=한상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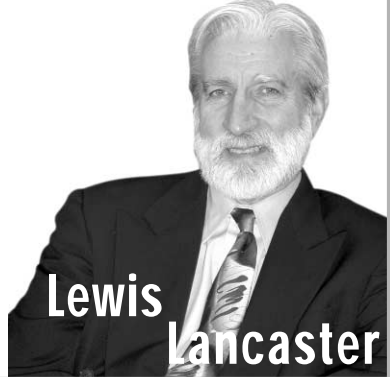
■ 루이스 랭카스터 총장

“불교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무된 오늘날 한국불교계와 종단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자문해봐야 합니다. 세계화를 위해 어떠한 준비가 돼 있는지, 어떻게 서구사회에 접근해 가야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7월 미국 LA 서부대학을 방문한 기자에게 루이스 랭카스터(Lewis Lancaster) 총장은 세계화에 있어 우선순위는 한

국불교 스스로의 각성”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2월 서부대학의 총장으로 새로 부임한 랭카스터 박사는 버클리 교수시절부터 한국불교학의 1세대 혹은 선구자로 불려왔다. 지난 1979년 해인사 고려대장경 영문목록의 발행으로 세계에 고려대장경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세계 불교학, 종교학 연구에 새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 버스웰·박성배·조성택·조은수 교수로 이어지는 한

대하여 불교학 분야에도 불고 있는 ‘중국 붐’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재, 서적 등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세계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랭카스터 총장은 “1992년부터 진행해 온 해인사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학자로서의 꿈”이라며 한국 불교가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원한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상희 기자



Lewis Lancaster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 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 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불기 2549 ('05)년 불교문화학교 신입생 모집

불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유능하고 신심이 있는 젊은 불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남 - 5명, 여 5명
2. 전형일정 : 원서접수 (불기2548('04)년 10월 15일 ~ 12월 15일)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력인정 예정자 포함)
4.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2. 최종학력 증명서
 3.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4. 자기소개서
 5. 추천서
4. 문 의 처

충남 공주시 계룡면 상성리 77-1 불교문화학교
문의 041-852-0408 WWW.15440108.COM

“범퇴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회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충남 공주시 계룡면 상성리 77-1 불교문화학교 문의: 050-5844-0108

사원 모집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지점장-남0명, 여0명, 사원-남0명, 여0명 •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의: 050-5244-0108